

# 섬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섬 살이 지원사업 참여 에세이 ‘섬에 살으리랏다’

천도천색(千島千色),  
각자 고유의 개성을 빛내는  
고군산군도의 섬들

윤지훈

섬 살이 : '22. 10. 11. ~ 14.

**b** 블로그 : <https://blog.naver.com/jihun19221>

“최선의 불평은 개선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개선은 허공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개선을 이루는 첫 단계는 더 나은 것을 만드는 것이다.” 최근 내가 읽고 있는 세스고딘의 ‘마케팅이다’에서 나오는 한 구절이다. 나는 여행을 다니는 그 횟수에 비해 비교적 ‘섬’을 많이 찾는 편이다. 아마, 섬이 가진 다양한 경치(바다, 해양 생물, 갈매기, 산, 나무, 들판- 거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의 모임이다.)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런 비경에 가까운 여행지를 가려면 당연히 그 과정이 쉽지가 않다. ‘캠핑성지’라고 불리는 굴업도의 경우 배를 두 번이나 타고 들어가야 할 뿐더러 선착장까지의 거리가 멀어 섬 주민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당연히 그만큼 수고를 들일 정도로 좋은 경치(특히, 사슴)를 갖고 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군산군도는 섬이 가진 매력은 극대화, 단점은 최소화한 매력적인 여행 장소라는 것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국민 섬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민은 섬을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배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한다고 했다. 나 또한 그랬다. 고군산군도에 오기 전까진, 고군산군도는 무려 대중교통을 이용해 올 수 있는 여행지다. 특히, 군산과 그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여행지는 없다고 자신한다. 고군산군도는 놀라울 정도로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무려 대중교통(버스-99번)을 이용하여 여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좋다. 또, 섬마을 주민 분들께서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동스쿠터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기에 이를 이용하면 편하게 섬의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다.

고군산군도는 교통이나 도로 노면 상태 등 이동수단에 대한 기반시설이 매우 잘 갖춰져 있는 섬이며 더욱이 좋은 점은 섬이 가진 가장 고유한 가치인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고군산군도의 다양한 섬에 방문하면(선유도, 장자도, 무녀도, 신시도, 야미도/모두 육로로 통행 가능, 섬과 섬 사이 거리 30km/h 기준 체감 5분) 매우 인상적인 경치 속에서 좋은 사진을 얻어갈 수 있다. 사진 찍을 곳이 무척이나 많았고 그만큼 좋은 사진도 정말 많이 나왔다. 길가다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무심코 찍은 사진이 상당히 마음에 들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냥 걷다가 길가, 꽃의 느낌이 좋아 휴대폰을 들고 무심히 톡 하고 찍으면 좋은 사진이 나온다.

고군산군도의 여행 기반시설이 탁월하게 좋아진 데에는 한국섬진흥원, 행안부, 군산시청 등 다양한 기관, 부서의 긴밀한 협업과 고군산군도를 더 좋은 여행지로 만들고자 하는 섬마을 주민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한다. ‘개선은 허공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개선을 이루는 첫 단계는 더 나은 것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말처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노력이 모여 가고 싶은 섬을 만들어 내었다. 우리나라는 3,400여 개의 섬을 보유한, 세계에서 인정받는 다도해 국가다. 천도천색(千島千色)이란 말처럼 섬들은 각자 고유의 개성을 가지고 빛나고 있으며, 그러한 섬의 가치는 무한히 펼쳐질 것이라 확신한다.

